

## 건설공제조합 운영위

◇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



장은 31일 오전  
10시30분 서울  
논현동 건설회  
관에서 열리는  
건설공제조합

운영위원회에 참석.

## 경제인 동정



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.

## “올 건설수주액 23.6兆 줄고, 향후 5년간 일자리 32.6만개 사라질 것”

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보다 1.3% 감소하고,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취업자 수가 각각 0.22%포인트, 2만4000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.

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‘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’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

연구원은 건설경기의 대표적 동행지표인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최근 빠르게 둔화되면서 경제와 고용

건설투자, 전년 수준 유지면 성장률 3% 전망… 건설연 보고서

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.

2016년 10.3%, 2017년 7.6%에 달했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분기에 1.8%로 급락했고, 2분기에는 마이너스(-0.7%)로 돌아서는 등 하락세가 가파르다.

연구원은 올해 건설수주액을 작년보다 14.7%(23조6000억원) 감소한 13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.

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-0.2%로 전망했다.

이홍일 건설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“올해 건설수주 감소가 건설기성(건설투자)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5년간 산업생산 총 52조 1000억원, 취업자 수 32만6000명이 감소할 것”으로 추정했다.

다만, 연구원은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 올

해 경제성장률 3% 달성이 가능하고, 하반기 실업률도 0.1%포인트(3.5→3.4%)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. 실제 2016년(51.7%)과 2017년 상반기(50.5%)에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%를 넘기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.

이 실장은 “최근 건설경기 하락 속도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르다”며 “건설경기 경착륙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김태형기자 kth@